

나를 따른 집



2022 이케아 라이프 앳 홈
(Life at Home) 보고서



라이프 앳 홈(Life at Home) 보고서 소개

이케아는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
집에서의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알아봅니다.
2022년에는 독일, 인도, 일본, 영국,
미국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37개국에 거주하는 3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한 집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Tomohiro(토모히로), 일본



Marqus(마커스), 미국



Karin(카린), 독일



Mehek(마헷), 인도



Abi(애비), 영국

요약

집은 나를 닮은 곳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우리는 집을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여기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약

10명 중 4명

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가계,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작년보다 자신의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집이 우리의 개성을 반영할 때 우리는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집에 반영된 나만의 개성은 내가 소유한 물건, 내가 사용하는 공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긴장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약

10명 중 6명

만이 집이 나를 반영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이 만족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집에서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순간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집을 모두가 만들 수 있도록요.

Abi(애비), 영국



나처럼 느껴지는 곳

소개	05
제1장: 무엇이 집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10
제2장: 개성을 반영하는 집	18
제3장: 소중한 물건이 갖는 힘	25
제4장: 목적에 맞는 공간	34
결론	42

집 안을 둘러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12살 때 받은 20년 된 축구 트로피?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신 인형?
아니면 미처 정리하지 못한 해적 놀이의 흔적?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공간도 있나요?
푹 파묻혀 쉬었던 가장 좋아하는 소파 자리,
잡동사니로 가득 차 쳐다보고 싶지 않은 여분의
방 같은 곳이요.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지닌
개성의 연장선이에요. 장식품,
소파 스타일, TV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집에 담아내려고 해요.”*

Tom(툼), 영국

집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나요?

집을 둘러보았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케아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을 때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죠.

약

10명 중 6명

만이 집이 내가 누구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는 그 수치가 절반으로 더 낮아집니다.

개성을 반영하는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삶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곳,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집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의 집에서의 일상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기후 변화 등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합니다.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약

10명 중 4명

은 작년보다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을 우리의 니즈와 가치를 충족해주는 안식처로 만들기 위한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장 큰 걱정거리

1위: 국가 경제 **(66%)**

2위: 가계 **(61%)**

3위: 기후변화의 영향 **(56%)**



Abi(애비)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할 명확한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집에 대해

1.5배

더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나를 반영하는 집에 우리는 더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우리를 둘러싼 혼돈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다고 느끼죠.

“내 취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물건이 집에 있는 게 정말 좋아요. 내 모습이 반영된 것이니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가장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Abi(애비), 영국

44%

집이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중 아래의 말에 동의한 비율

27%

집이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중 아래의 말에 동의한 비율

“나는 작년보다 우리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

집이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경우, 집이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된다고 믿을 가능성이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집 안의 물건과 공간,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집이 나를 반영한다고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2%

집이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중 아래의 말에 동의한 비율

30%

집이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중 아래의 말에 동의한 비율

“집은 정신적 웰빙의 원천이다.”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이에요. 많은 물건을 모아 정성껏 꾸몄죠. 하나의 성 같아요.”

Ishida(이시다), 일본

하지만 집은 긴장감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5명 중 4명

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집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집이 깨끗하지 않거나, 집안일이 쌓여 있거나, 너무 어질러져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죠.



Marqus(마커스), 미국

“저는 깨끗한 공간이 좋아요. 주변이 어질러져 있으면 뭐든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Marqus(마커스), 미국

우리가 집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것과 그곳에서 실제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89%

의 사람들이 집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곳이 집이라고 말한 사람은 56%에 불과하죠.

생활 비용이 점차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의 취미와 관심사에 쓰는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집과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죠.



Abi(애비)와 그녀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늘어난 가계 예산은 중대한 삶의 결정이나 함께 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약

10명 중 1명

은 늘어난 생활 비용으로 인해 결혼, 출산 등의 가족계획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 그리고 나와 함께 집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집을 만들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집을 만들기 위한 진실된 영감을 실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로부터 듣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48%

의 전 세계 사람들은 미디어가 자신이 집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1%

미디어가 나의 집에서의 생활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리투아니아 사람의 비율

18%

미디어가 나의 집에서의 생활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슬로바키아 사람의 비율

나처럼 느껴지는 공간



Marqus(마커스), 미국

어느 누구도
집과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현관에 들어설 때 집을 나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제1장:

무엇이 집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편안한 우리 집



즐거워 우리 집



Marqus(마커스)와 아내 Eva(이바), 반려견 Carrie(캐리), 미국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집은 여전히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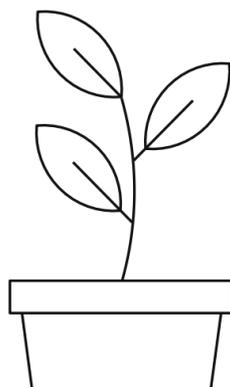
어떤 사람들에게 집은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공간이죠.

약

4명 중 1명

은 집에 머물기 위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그 비율이 **3명 중 1명**,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집은 조금 엉뚱하면서도 멋진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이 기르는 식물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도의 경우 **4명 중
1명**으로 올라갑니다.

작년에 비해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집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낮에 잠시 눈을 붙일 공간이 필요하거나
집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저를 보호해줘요.
모든 문제로부터 저를
막아주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요.”*

MEHEK(마헝), 인도

약

4명 중 1명

은 작년에 집에 있는 동안
침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5명 중 1명은 집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4명 중 1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집에서의 7가지 정서적 니즈 이해하기

오랫동안 이케아는 무엇이 '집의 느낌'을 만드는지 탐구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는 지역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공통된 필수 요소가 몇 가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충분한 안정감과 편안함, 큰 소속감과 소유감, 건강한 수준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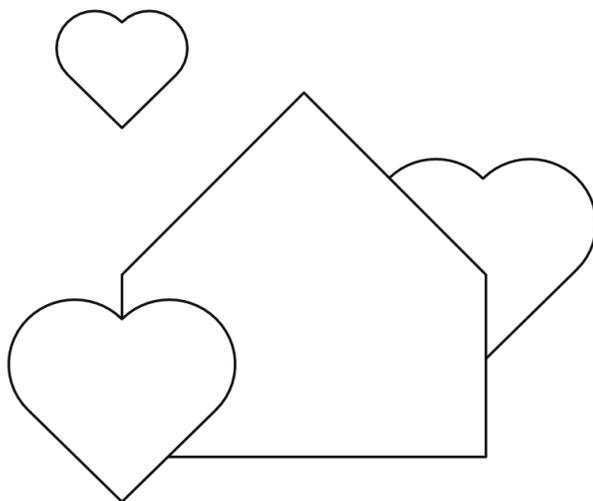
하지만 사람들의 니즈는 변하기 마련이고, 이케아는 최근 조사를 통해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더 찾아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갔을 때, 우리는 집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 즐거움과 성취감이 우리 집에서 충족하고 싶은 새로운 '정서적 니즈'가 되었죠.

우리는 집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공간을 제공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집에 있는 게 즐거워야 해요. 저는 집에서 하는 모든 것에 '즐거움'이라는 태그를 붙이고 싶어요. 물론 집은 여전히 먹고, 자고, 놀기 위한 기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걸 즐겁게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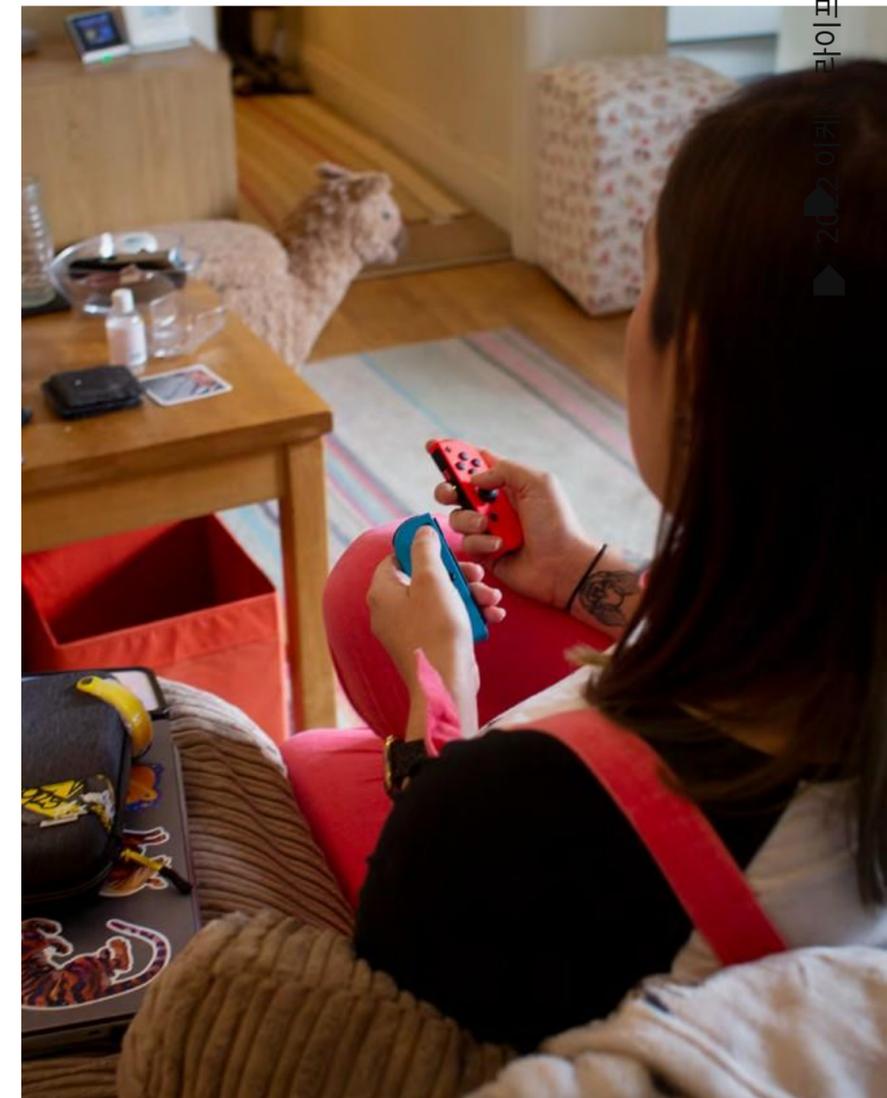
Anish(아니쉬), 영국



우리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일이나 공부뿐 아니라 개인적인 취미를 통해서도 성취감을 느끼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디너 파티를 준비한다거나 아주 어려운 퍼즐 맞추기를 성공했을 때처럼요.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어른이 되었고,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으며, 나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Jeldos(엘도스), 독일



Abi(애비), 영국

집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어요

미래를 그리며 이상적인 집을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는 성취감과 즐거움이라는 니즈를 채워줄 장소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상상하는 거죠.

54%

의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쉴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집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66%)하지만, 인도에서는 가장 덜 중요(22%)합니다.

하지만 집에 많은 애정을 쏟더라도 집이 항상 우리의 니즈를 충족해주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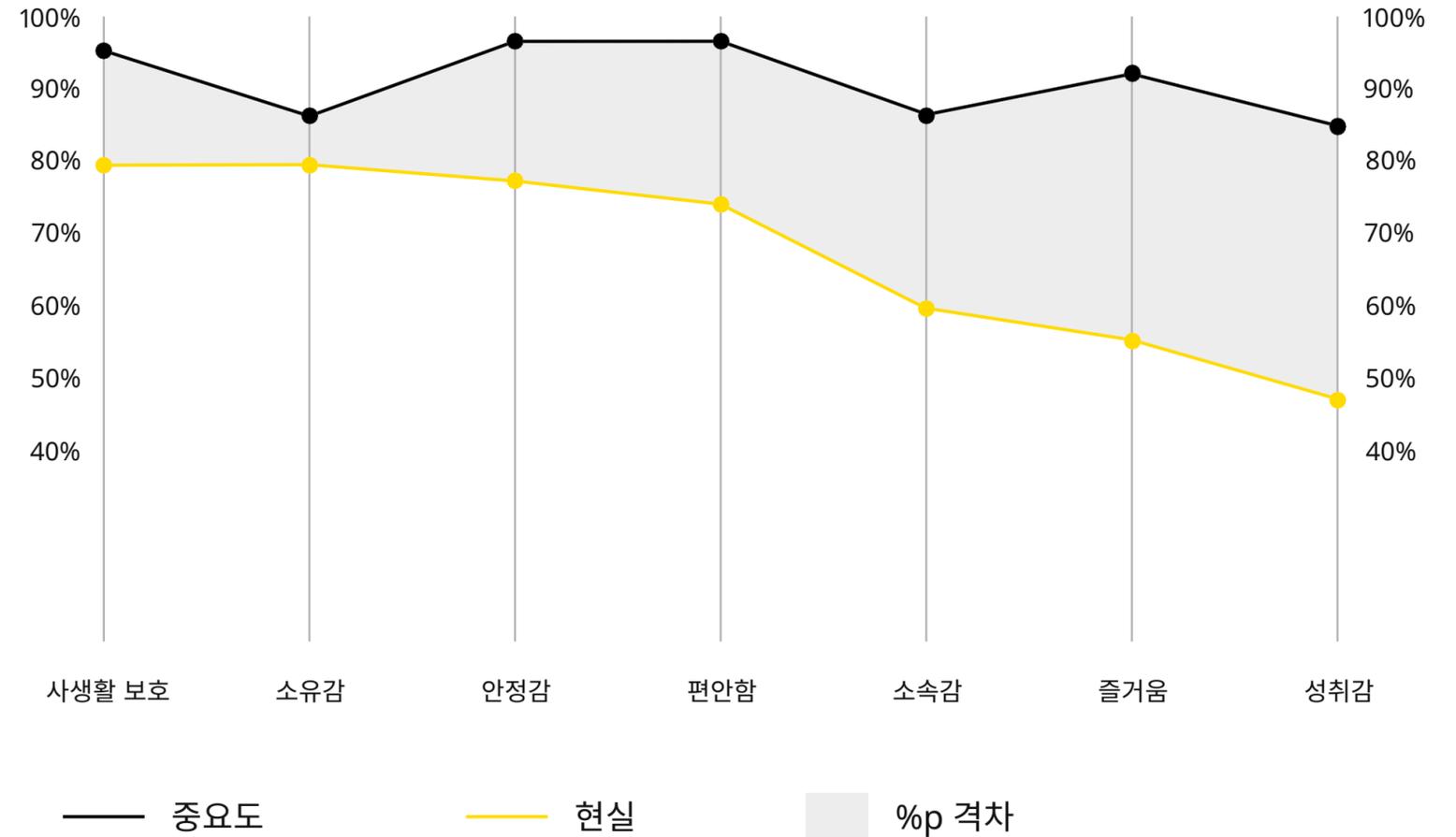
사는 지역이나 방법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는 집에서 원하는 것과 집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 사이의 격차를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특히 즐거움과 성취감이라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니즈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격차의 정도는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즐거움에 대해 질문하면, 72%의 일본 사람들은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곳이 집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43%만 이에 동의하죠.

59%

의 태국 사람들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장소가 집이라고 말합니다. 설문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죠.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29%만이 이에 동의합니다.



72%의 일본 사람들은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장소가 집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에 비해 스페인은 43%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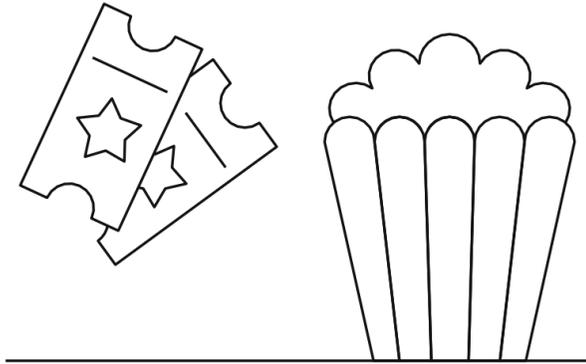


가장 큰 즐거움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시 많아지면 집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은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즉, 집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집 밖에서 즐기던 취미 생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일자리 안정성보다도요.

43%

는 생활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경우, 집 밖에서의 취미와 관심사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1%

는 자신의 일자리 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Karin(카린), 북유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집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밖으로 나와 취미를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또다시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모든 기능적, 정서적 니즈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영향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십자수를 하거나 피트니스를 하는 등 집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의 다양한 경험

집이 언제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공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정서적 니즈를 채울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룸메이트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즐거움, 성취감, 그리고 놀랍게도 소속감 부분에서 가장 큰 결핍을 느낍니다.

기숙사나 세어 하우스, 월세/전셋집 또는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성취감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에서 공부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서적 니즈 충족에 영향을 미칩니다.

10명 중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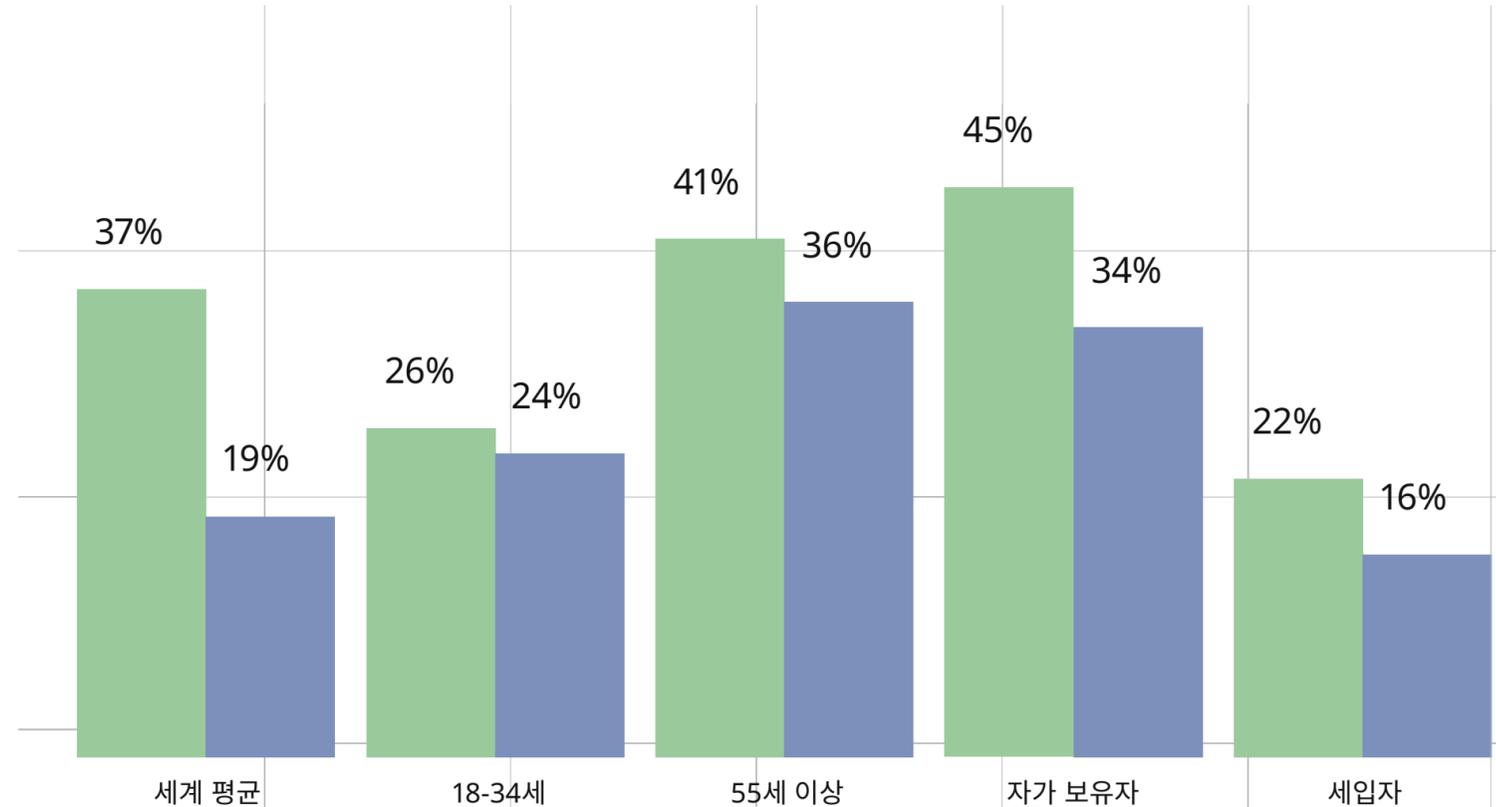
의 사람들이 집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은 **10명 중 5명**뿐이죠. 이 수치는 자가 보유자의 경우 **10명 중 8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에 너무 우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더 밝을 테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집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를 소유하거나 또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변하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나이가 많은 그룹이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꾸미는 방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니즈와 관련된 격차를 좁히고 집을 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죠.

가장 어린 연령대와 최고령층 모두 즐거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88%**)은 같았지만, 이러한 니즈가 가장 잘 충족되는 곳이 집이라고 답한 그룹은 최고령층이었습니다.

자가 보유자와 세입자 사이에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큰 즐거움을 집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는 집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은 내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다.”

집에 대한 애정



Marqus(마커스), 미국

우리는 현관문 안팎에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개성을 조금만 더한다면 집에 대한 애정의 씨앗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거예요.

제2장:

개성을 반영하는 집

개성을 반영하는 집



Tomohiro(토모히로), 일본

내 개성을 반영하는 집의 장점



Karin(카린), 독일

집을 우리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처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 집을 둘러보았을 때 우리의 고유한 개성이 반사되어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나 조상을 모신 사당 등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생활 공간 전반에서 드러납니다.

58%

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집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1.5배

더 집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제 친구들이라면 이걸 딱 ‘Chris(크리스)’의 집이라고 말할 거예요.”

Chris(크리스), 영국



Karin(카린), 독일

“누군가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 Karin(카린)이 산다는 걸 알 거예요. 곳곳에 Frank Zappa(프랭크 자파)가 있으니까요. 너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 안타깝죠. 그의 음악은 제가 열일곱, 열여덟 살 때부터 늘 저와 함께였어요.”

Karin(카린),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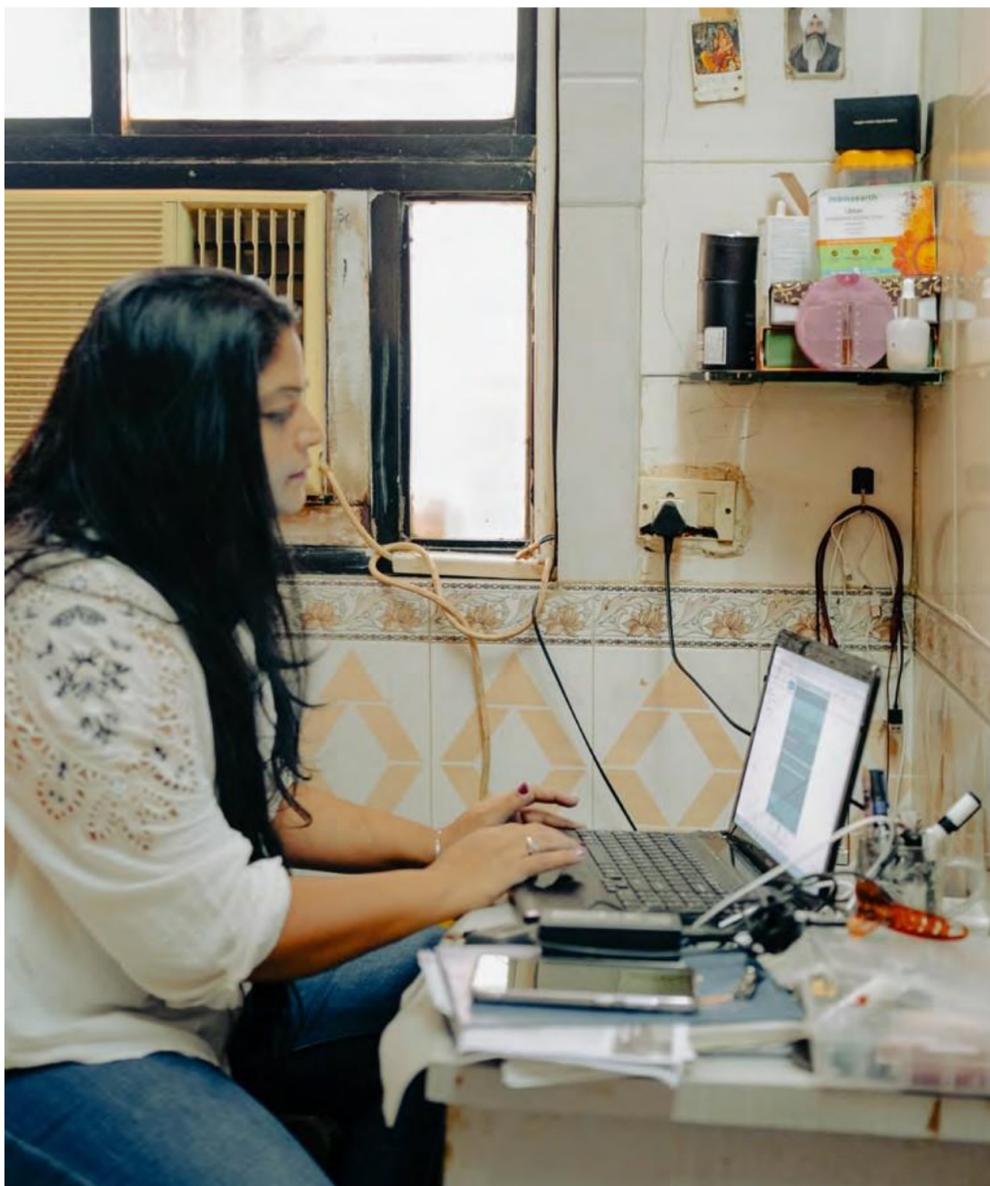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건 집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집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집이 긍정적인 정신적 웰빙의 원천이라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 높습니다.

집이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 가운데 **52%**는 집이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집이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0%**만이 이에 동의합니다.

집이 개성을 반영하는 정도의 차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는 집이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Mehek(마헝), 인도

약 10명 중 6명만이 집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집에서 나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젊은 세대의 절반만이 집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비율은 56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거의 3분의 2까지 올라갑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집이 자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62%의 여성은 집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남성의 경우 그 수치가 54%에 불과합니다.

자가 보유자는 세입자보다 더 그렇게 느낍니다. 62%의 자가 보유자는 집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입자의 경우 이 수치가 42%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거주 국가도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69%의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사람들은 집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영국은 51%, 일본은 37%, 슬로바키아는 23%만이 그렇게 느낍니다.

소득 수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63%의 고소득자가 집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 56%만이 그렇게 느낍니다.



Abi(에비)와 그녀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미디어가 언제나 우리의 집에서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진정한 내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영감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가 우리의 집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미디어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집을 그려낼 때가 많은데, 그런 집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죠.



“저는 제 생활이 미디어에 반영된다고 전혀 느끼지 않아요... 40대 싱글 게이 남성인 저는 광고에서 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비혼주의자 또는 비혼 지지자가 많지만, 일반적인 집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Chris(크리스), 영국

48%

의 사람들은 미디어가 나의 집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ietske Gerla(시엣스케 옐라)를 만나보세요.

집에서 내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케아의 인테리어 디자인 매니저인 Sietske Gerla(시엣스케 옐라)가 아끼는 물건들의 공통점을 발견해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방법을 조언해드립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물건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을 집에서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을 몇 개만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특정한 컬러 배합이나 자연과의 연결성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매번 마음이 끌려서 갖게 된 물건인지 아니면 그냥 유행이라 선택한 물건인지요.

저는 여러분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민할 때 지금의 트렌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개성을 더 반영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나 연말연시를 맞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단하게 집 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식탁보를 여러 개 사는 대신 패브릭을 미터 단위로 구매하면 재미있는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죠. 아이가 텐트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สปอร์ต라이트

자신과 함께 생활하기

역사적으로 혼자 사는 건 부정적으로 묘사될 때가 많았습니다. 고립이나 교우 관계의 부재와 연결되곤 했죠.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대상의 **13%**나 되는 사람들이 작년에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건 나만의 니즈에 집중할 수 있는 해방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Karin(카린, 64)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가족과 살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 Karin(카린)은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집이란 저에게 아주 기능적인 공간이었어요. 저 스스로를 돌보는 데 소홀했고, 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어떤 장식도, 화초도, 중요한 물건도 두지 않았죠. 지금은 성격이 더 차분해지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바뀌었어요. 맞춰 살아야 할 파트너도 더는 없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 정서적인 가치를 상당히 강조하며 모든 디테일을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다.”

Karin(카린),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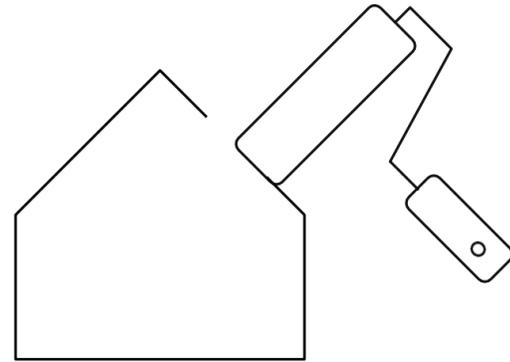


모든 디테일에
관심을 기울여요

Karin(카린), 독일

우리는 실제 집에서 살고 있는 실제 사람들로 부터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집에 변화를 주려면 먼저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로 부터 영감을 구하죠.



SNS와 TV 프로그램 등 집에 관한 영감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출처 목록을 보여주었을 때 **4명 중 1명** 이상이 상상력 자극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이 중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집에 관한 영감이라고 여겨지는 전형적인 것들에 대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반면 실제 사람들이 이룬 것을 보며 영감을 얻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고 싶다는 열의를 느낍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해내는 데 필요한 자신감마저 주기 때문이죠. 한 번에 작은 변화 하나씩은 실천해볼 수 있으니까요.

영감의 출처

1위: 집수리 TV 프로그램 (24%)

2위: 오프라인 홈퍼니싱 매장(22%)

3위: 친구 집 (19%)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의 생활을 집 안에 녹여내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말이죠."

Anish(아니쉬), 영국

그렇지만 영감의 출처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장년층의 경우 집을 수리해주는 TV 프로그램이나 오프라인 매장, 잡지 등에서 영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 이웃이나 친구의 집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고, SNS나 팟캐스트에서 영감을 찾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Abi(애비), 영국

영감의 불씨를 찾아요



Karin(카린), 독일

우리는 집에서 영감의 불씨를 찾았을 때,
내 개성이 집의 모든 공간에서 느껴질 때,
아름다운 나의 집에 대해 애정을 느끼고,
집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여깁니다.

이상적인 집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쉬울지도 몰라요.

제3장:

소중한 물건이 갖는 힘



소중한 물건이 갖는 힘

소중한 물건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푹 빠진 대상은 삶의 동반자나 귀여운 새 반려견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집에 누가 있느냐보다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가구든 냉장고 자석이든, 우리가 소유한 물건은 추억으로 가득 찬 스크랩북이 되어 주인이 지닌 고유한 감각을 일깨우며 원래 디자인된 의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2%

의 사람들은 직접 구매한 물건들이 집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비율은 **32%**에 불과하죠.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이에요. 많은 물건을 모아 정성껏 꾸몄죠. 하나의 성 같아요.”

Ishida(이시다), 일본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은 분명 우리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살거나, 가족 또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직접 구매한 의미 있는 물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파트너나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주나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니즈와 관심사를 위한 공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물건이 집을 우리 집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프라모델 자동차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진열도 잘해놓고요. 상품 가치가 높은 고급 미니어처 자동차를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죠. 지금 제가 만든 차들 옆에 진열해 두었어요. 제게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 누가 손대는 건 싫어요.”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우리는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싶어 합니다

약 3명 중 1명은 지난 추억과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집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진열하면,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는 자랑스러운 문화와 공동체, 전통과 연결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인도에서는 종교가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집의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재단을 차려 종교에 뿌리를 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바로 이 재단이에요... 특별한 장소이고, 제 하루의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죠.”

Mehek(마헝), 인도

일본에서는 가구를 소중한 물건으로 여기고, 여러 세대에 걸쳐 물려받아 쓰기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집을 여러 번 옮기더라도 가구는 해져서 버려야 할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죠.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진열해 둔 물건이 멀리 떨어진 시간과 장소를 연결해주는 빨간 실과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칸디나비아에 보냈던 휴가나 콘서트장, 페스티벌에서 사 온 기념품들이에요.”

Karin(카린), 독일

소유한 물건이 가진 힘은 가구에도 스며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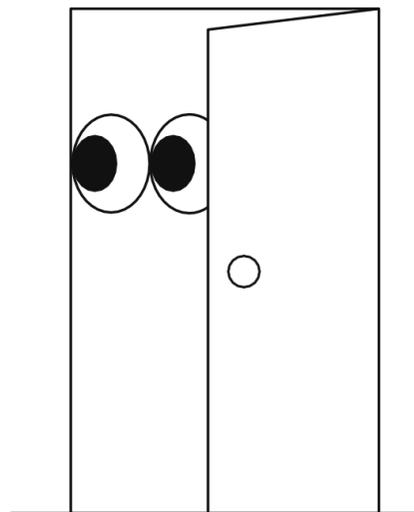
집 안 곳곳의 기념품과
장신구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 물건들이 지닌 감동의 기억은
물건을 진열한 가구에도
스며들죠.

오래된 책장이라도 트로피로 가득 채우면
성취감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부서질 듯한 테이블을 휴가지에서 찍은
마음에 드는 사진들로 장식하면 그 멋진
여름날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이케아 유리수납장에 제가 아끼는
디제잉 장비, 스테레오, 피규어,
카메라 등을 진열해 두었어요.
진열해 두니까 아끼는 많은 물건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매일 기운이 나요.”*

Higuchi(히구치), 일본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우리의 개성에 관해
많은 걸 말해준다는 사실을 알면 왜 **20명
중 1명**의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 집 수납장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다른 집 서랍과
찬장을 훑쳐보는 수치가
3배나 높았습니다. 가장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소유한 물건은 긴장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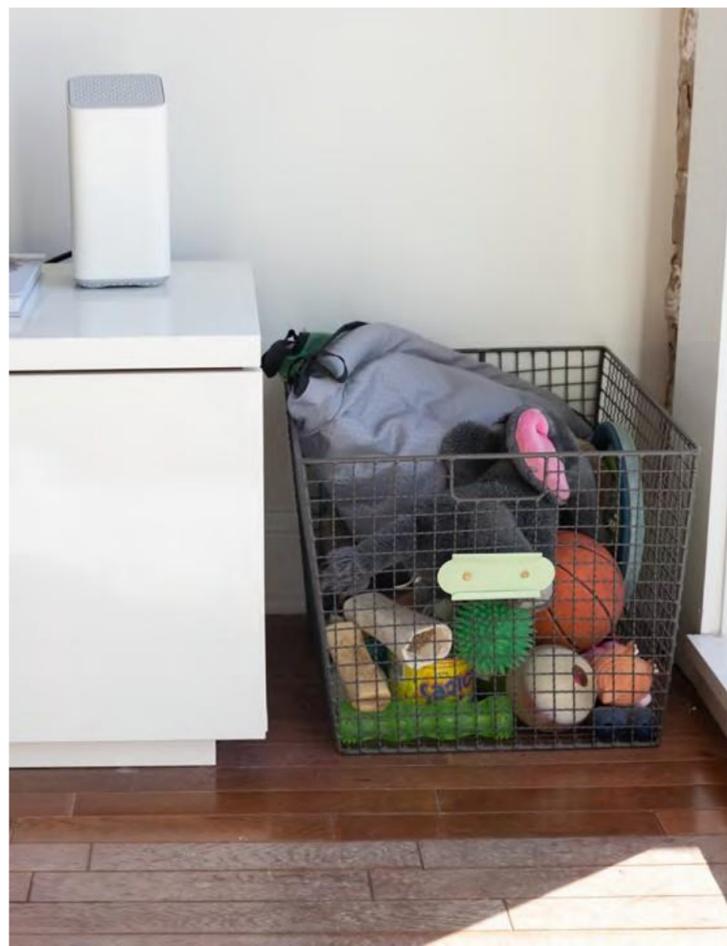
우리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항상 좋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에 긴장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저는 눈을 감고 지나치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문을 닫으라고요. 저희 집 손님 방은 분명 이름에 걸맞지 않은 공간이에요. 너무 엉망이라 저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지저분한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 Grit(그릿), 독일

5명 중 4명

은 집의 어떤 측면에 의해 주기적으로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은 것도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잡동사니는 청소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이 됩니다.



전 세계 집의 가장 큰 골칫거리 5가지

1위: 지저분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집 (25%)

2위: 집안일 (23%)

3위: 정해진 자리가 없는 너무 많은 물건 (21%)

4위: 물건을 넣을 공간 부족 (19%)

5위: 지저분함에 대한 관점 차이 (17%)



많은 사람들의 솔루션

집 안의 골칫거리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공간을 창의적으로 꾸미는 일까지, Abi(애비), Tomohiro(토모히로), Mehek(마헝)과 같은 사람들은 집 안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제일 큰 골칫거리죠... 집이 조금만 더 크면 좋겠어요. 하지만 집을 당장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집 안의 다른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떤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없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요.”

Abi(애비), 영국

창의적인 수납 루틴

“저희 집에서 가장 흔한 물건은 아이들 장난감이에요. 처음부터 수납함 여러 개를 준비해두고 아이들이 어지른 후 직접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정리 정돈에 대한 노래도 불러요. 아이들이 항상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 Tomohiro(토모히로), 일본



Tomohiro(토모히로)와 아들, 일본

모든 공간 최대한 활용하기

“수납함과 선반이 많으면 모든 것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저희는 모든 벽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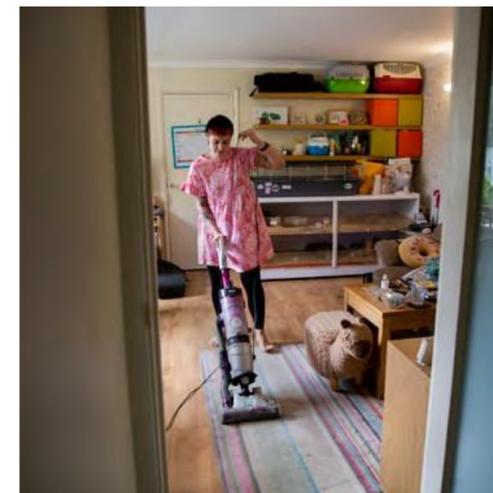
- Abi(애비), 영국



미리 생각하기

“가족이 같이 사는 집이라 항상 공간이 좁다고 느껴요... 그래서 정리가 덜 필요한 물건을 고르죠. 모든 가족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걸 선호해요.”

- Mehek(마헝), 인도



Abi(애비)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깔끔하게 정돈하기

“저희는 청소 당번이 있어요. Hannah(해나)는 주방 담당이고 저는 청소기를 돌리죠. Rob(롭)은 욕실을 청소하고요.”

- Abi(애비), 영국

집 안의 성별 격차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일 등을 생각할 때, 집안일에는 여전히 분명한 성별 격차가 존재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집 안을 더 대표한다는 느낌을 받지만, 생활하는 곳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더 많이 갖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성별 격차가 2배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집안일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2배 이상입니다. **(여성 23%, 남성 10%)**

하지만 필리핀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집안일로 인한 좌절감에 있어 성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성 22%, 남성 21%)**



Tomohiro(토모히로)와 아내, 일본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56%

더 집안일을 최고의 골칫거리로 꼽을 가능성이 큼니다.

Tyler Moore(타일러 무어)를 만나보세요.

집을 깨끗하고 잘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TidyDad라는 이름으로, 영감 넘치는 집 정리 팁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한 Tyler Moore(타일러 무어)가 집안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집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정리, 정돈, 청소의 책임을 다 진다면 버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지르니까, 모든 사람이 성별과 관계없이 청소하는 법을 배워야죠.”

한 가지 해결책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또는 좀 더 즐길 수 있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집안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타협할 방법을 논의하고 일의 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집안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족 루틴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버거운 일의 경우 좀 더 해볼 만한 작은 부분들로 나누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일을 정해두면 버거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잡동사니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동사니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공간을 깨끗하고 잘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집 정리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세면대는 가족이 쓰는 치약과 컵들로 너저분하고 수납공간이 거의 없어요. 화장품과 다른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잡동사니로 인한 괴로움은 보편적이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납공간이 부족하죠. 평생 물건을 모으고 버리지 않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잡동사니가 꾸준하게, 때로는 마법처럼 쌓여가는 걸 설명할 단 하나의 공식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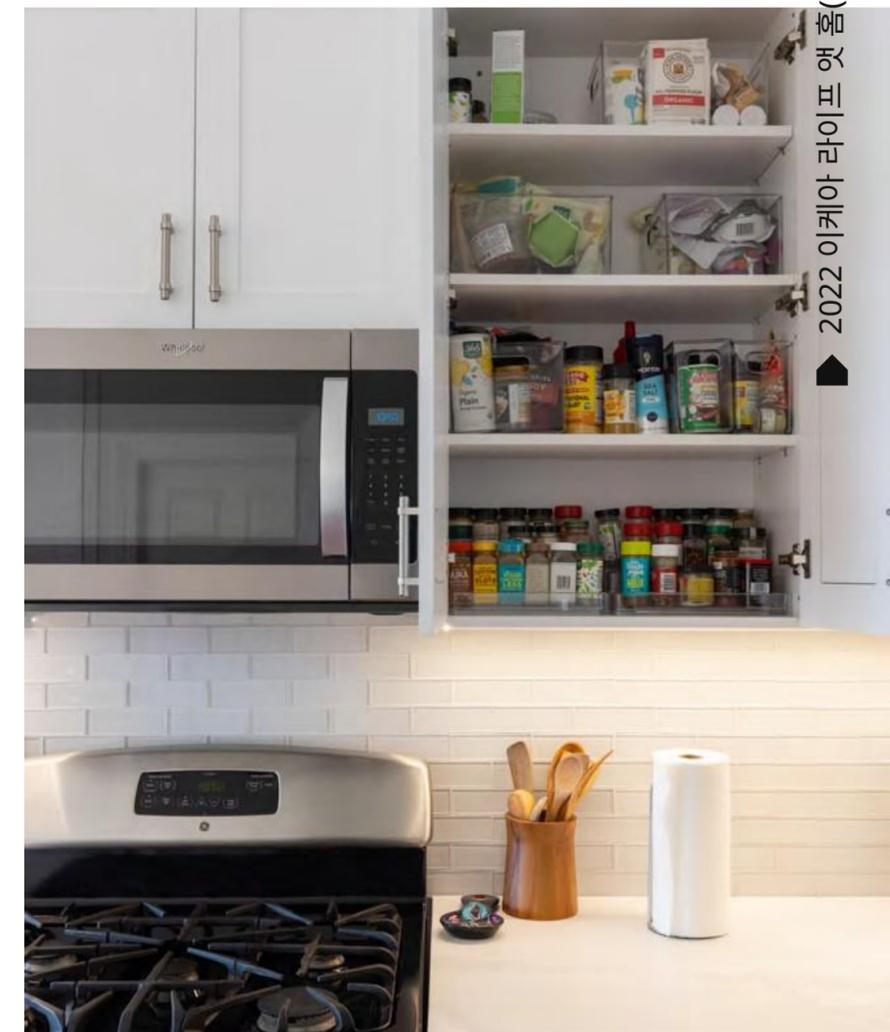
전 세계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걱정거리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질러진 공간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수납 공간과 깔끔한 선반 등을 간절히 원하죠.

일본에는 집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아 추가 수납을 더할 공간이 적습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제한된 수납 공간과 지저분한 공간에 대한 부끄러움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일부 사람들은 옛날 물건을 버리지 않은 채 새 물건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며 잡동사니를 계속 쌓아 올리죠.



Joseph R. Ferrari
(조셉 R. 페라리)를 만나보세요.

집 안의 잡동사니를 치우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시카고 드폴대학교의 심리학
석좌교수이자 가톨릭 부제인 Joseph
R. Ferrari(조셉 R. 페라리) 박사는
잡동사니를 치우는 어려움에 맞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는 '물건'으로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잡동사니'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인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유물의 양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잡동사니를 치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리 안 된 물건의
너비와 깊이에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치우는 일을 그냥 피해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을 버리는
결정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은 치울 준비가 안
됐거나 못 치울 수도 있어요.

해결책은 잡동사니를 치우기 전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리기로 결정하기 전에
만져보세요. 촉감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에 빠지지 마세요.
원하는 물건이 필요한 물건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물건을 눈에 띄는 공간에



잡동사니를 치우고 추억이
가득한 물건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내어줄 때,
우리는 집이 우리의 일부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과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정체성을
느끼고 행복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집이 마치
거대한 디스코 미러볼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추도록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장:

목적에 맞는 공간



목적에 맞는 공간

Marqus(마커스)와 아내 Eva(이바), 반려견 Carrie(캐리), 미국

나를 위한 공간 찾기



Marqus(마커스)의 아내 Eva(이바)와 반려견 Carrie(캐리), 미국

내 니즈와 관심사를 위한 공간을 가지면 진짜 내 모습을 도장처럼 찍은 나만의 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동네에서 가장 큰 저택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공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죠.

40%

의 사람들은 나만의 니즈와 관심사를 위한 공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집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약

3명 중 1명

이 이상적인 집은 그들이 가진 모든 공간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Abi(애비)와 그녀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모든 방을 스위스 맥가이버 칼처럼 모든 시나리오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침실에 업무용 책상과 운동 공간을 두길 열망하는 사람은 없죠. 여분의 방에서 책을 읽고, 기타도 치고, 빨래도 말리고 싶은 사람도 없을 테고요.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집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은 기능을 소화하는 방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졌죠.**

'딱 맞는'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딱 맞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쓰지 않는 공간은 너무 많이 쓰는 공간만큼이나 골칫거리니까요.

“원래 여분의 방이 하나 있었고 가족 공부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책상을 개인 방으로 옮기면서 텅 비어 버렸어요. 이제 용도 없는 방이 된 거죠. 큰 TV를 놓았지만 보지 않아서 큰 복도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곳은 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 Kikuchi(키구치),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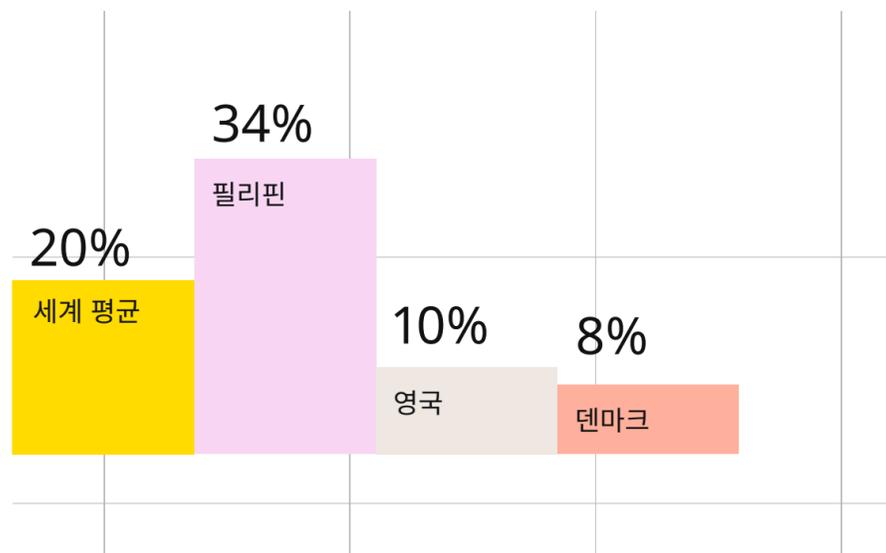
그러나 공간이 좁다면 용도 없는 방은 사치처럼 여겨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물건을 놓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할 공간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속가능한 홈 솔루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가장 큰 세 가지 걱정거리 중 하나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둘 공간이 없는 등 작은 어려움이 때로는 큰 장애 요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집에 변화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죠.

젊은 세대의

5명 중 1명

만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데 집이 도움을 준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는 지역은 개인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Cliff Tan(클리프 탄)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하면 생활 공간을 목적에 맞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집과 인테리어 공간을 최적화하는 건축 및 풍수지리 전문 업체인 Dear Modern(디어 모던)의 설립자인 Cliff Tan(클리프 탄)은 기능보다 에너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공간을 특정 용도보다 에너지와 정서적 연결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은 매우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함축하고 있는 에너지는 다를 수 있어요. 혼자서 읽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일 수도 있고, 다른 동료와 협업하고 논의하는 에너지 넘치는 공간일 수도 있죠.”



이런 점에서, 여러 용도를 가진 방이 있다면 에너지 수준이 비슷한 방끼리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을 에너지와 정서적 연결로 정의한다면, 그 방과 에너지가 맞는 느낌이 드는지를 기준으로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공간은 용도가 더 분명해져서 외면받지 않습니다.”

공간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공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만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이 충족해야 하는 니즈와 관심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의 정해진 목적과 적응 능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엔 외출 타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부모라는 타이틀을 벗고 진짜 내가 될 공간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을 우선시해 자신의 공간을 포기했던 일본의 한 아버지는 처음에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한 가족은 동지로 다시 몰려드는 자녀들로 인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방에 자기 정체성의 특정 부분을 표현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욕실을 안식처로 삼았는데요. 집 안 모든 공간 중 오직 이곳에서만 아내나 엄마가 아닌 한 여성이라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집의 기능입니다.

젊은 세대의

10명 중 4명

만이 집이 구성원 모두의 사생활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세입자의 경우 **10명 중 3명**으로 떨어집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은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 거의 **3명 중 1명**으로 높아집니다!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심지어 혼자 살더라도 이웃들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Chris(크리스)는 발코니를 좋아하지만 이웃과 너무 가까워서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거나 헤드폰을 씌으로써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때, 정신적 웰빙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사적인 공간에 안전하게 몸을 숨길 때 우리는 진짜 내가 될 수 있고, 또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거나 시끄럽게 해도 저는 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기만 하면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은 제가 일과 취미 생활을 하는 사적인 공간이니까요. 사적인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예요.”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약

3명 중 1명

의 사람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집에서 혼잣말을 해봤다고 인정했습니다.

22%의 사람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침대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으며, 이 수치는 18~34세의 경우 **32%**로 높아집니다.

8%

의 사람들은 욕실에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함께' 있는 느낌을 원합니다

여러 명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혼자이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균형을 찾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정하면 혼자서든 함께든 모두가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픈형 벽을 두거나 소리가 집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면 연결된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 집은 너무 좁고 높아서 네 개의 집이 마치 서로 엮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죠.”

Nicola(니콜라), 영국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양면서도 공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일하는 공간과 집을 나누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을 세워서라도 말이죠.



Marqus(마커스)의 아내 Eva(이바)와 반려견 Carrie(캐리), 미국

영국에서는 방 안에 다양한 '구역'을 만들어 업무, 휴식, 놀이에 쓰는 공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Tomohiro(토모히로), 일본

일본에서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한 전용 오피스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예배, 요가, 명상 등의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선택하느냐는 기도하는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Mehek(마헝), 인도

많은 사람들의 솔루션

다양한 정체성을 담은 공간 만들기

다른 사람들과 생활 공간을 공유할 경우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bi(애비), Karin(카린), Marqus(마커스), 그리고 이들과 집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절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결국 한 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에 각자만의 특별한 개성을 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 Marqus(마커스), 미국

일정 맞추기

“Rob(롭)은 약 80% 재택근무를 하고, Hannah(해나)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재택근무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소파에서 함께 일하곤 하죠.”
- Abi(애비), 영국



Abi(애비)와 그녀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Karin(카린), 독일

모두에게 맞는 가구 고르기

“저는 크고 긴 나무 책상을 원했어요. 아이들과 손주, 사돈까지 모두 쓸 수 있도록요.”
- Karin(카린), 독일

디자인 방향 합의하기

“제 아내와 저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을 정말 잘 해냈어요. 저희는 너무 특이한 건 좋아하지 않고, 차분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죠. 그래서 무리 없이 결정을 내렸어요.”
- Marqus(마커스), 미국



Marqus(마커스), 미국

하지만 공유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서 집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해주니까요.

저희가 특별히 애정을 쏟는 공유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할머니, 룸메이트부터 꼬마와 털복숭이 반려동물까지, 우리는 모두 말랑말랑한 소파에 푹 빠져있습니다. 집의 허브 공간인 주방을 차지하러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사적인 순간을 원할 때,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을 때도 찾는 공간들이에요.



Marqus(마커스), 미국

“제가 즐겨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제 농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요. 주변 뷰도 좋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 하나죠.”

Marqus(마커스), 미국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단계이지만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라는 느낌도 필요한 어린 가족 구성원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Abi(애비)와 그녀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Simone Bose(시몬 보스)를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집에서 나만의 니즈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요?

관계 치료 석사학위가 있는 영국심리상담치료협회(BACP) 등록 카운셀러인 Simone Bose(시몬 보스)는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나를 돌보는 많은 방식들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홀로 서는 것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것, 혼자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간을 관리할지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친구, 파트너, 부모,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요. 하지만 관계에 따라서 대화에 대한 접근방식은 달라야 하죠.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지 이야기해서 파트너가 뭔가 잘못 말하거나 행동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덜 친한 룸메이트라면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룸메이트에게 집이나 공유 공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더 편안하게 자신의 니즈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이지만
함께일 수 있는 공간

Abi(애비)의 자매 Hannah(해나), 영국

집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하려면 니즈와
관심사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 같죠. 방마다 정해진
목적이 있어야 하고, 혼자이지만 함께일 수 있는
공간을 모두에게 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편안한 소파 하나만 있다면 필요한 것의
절반은 이룬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방식대로 우리 집 만들기

집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쉬고, 함께 모이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일하고, 놀고, 웃고, 싸우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은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
곳이니깐요.

우리가 아끼는 물건들, 사용하는 공간,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만큼
특별한 집을 만듭니다.

이상적인 집을 그릴 때 우리는 편안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을 만들기 위한
우리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죠.

젊은 세대의

8%

만이 자신의 집에서의 생활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씁니다.
이 수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신경 쓰는
태국의 경우 17%로 올라가고, 에스토니아는
3%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이 별나고 불완전하지만 찬란한
내 모습을 반영할 때, 집을 바라보는 관점도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삶에서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더 잘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든,
어디에서 생활하든, 그리고 집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든, 우리 모두는 집에서 나처럼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 우리 집답게 만들 시간입니다.

lifeathome.ikea.com

#MakeYourselfAtHome



참여자 소개

이 보고서에서 만난 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3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정을
방문했으며, 다섯 분이 집을 촬영하고
본인의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Marqus(마커스), 미국

전직 농구선수인 Marqus(마커스)는 아내 Eva(이바), 반려견 Carrie(캐리)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디자인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깔끔하고 모던하며 미니멀한 스타일이죠.



Mehek(마헝), 인도

Mehek(마헝)에게는 매일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딸과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언제나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Tomohiro(토모히로), 일본

Tomohiro(토모히로)는 아내와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삽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발에 차일 때가 많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인 프라모델 장난감 자동차 만들기를 하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Karin(카린), 독일

Karin(카린)은 혼자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음악가 Frank Zappa(프랭크 자파)의 기념품 등 아끼는 모든 물건을 자랑스럽게 진열합니다.



Abi(애비), 영국

Abi(애비)가 자매와 자매의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그녀의 집에서는 기니피그가 왕입니다. 공간은 좁지만 네 마리의 기니피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 가족의 최우선 순위죠.



기술 고지 사항

정량 조사는 Ingka Holding B.V. - IKEA 그룹을 대신하여 YouGov가 수행했습니다. YouGov는 국제적인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그룹입니다. 라이프 앳 홈(Life at Home) 정량 조사는 37개국 18세 이상의 국가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태로 진행했고, 총 37,40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미국.

데이터 수집은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할당 표본 추출을 적용하였으며, 데이터에는 각국 통계의 이상적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결과가 대상 그룹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준

모두 성인 = 37,405명

